



국내서 열리는 유일한 LPGA 투어 정규대회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한국 선수들이 첫날 대거 상위권에 올랐다. 8언더파로 1라운드 선두에 나선 안나린, 7언더파로 공동 2위에 오른 전인지, 6언더파로 공동 4위 그룹에 합류한 유해란(왼쪽부터). 사진 | LPGA

안나린? 전인지? 박주영? 유해란? 안방서 '통산 200승' 느낌이 좋다

상위 13명 중 한국 국적 선수 8명...KLPGA 5명이나
고진영 '60대 타수' 최다 연속 라운드 도전은 물거품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00승에 단 1승만을 남겨둔 한국 여자골프가 리더보드 상단을 대거 점령하며 안방에서 대기록 달성 of 청신호를 켜고 있다.

국내에서 펼쳐지는 유일한 LPGA 투어 정규대회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23억6000만원)이 21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LPGA 인터내셔널 부산(파72)에서 개막했다.

LPGA 투어 소속 50명,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금랭킹 상위 30명과 추천선수 4명 등 총 84명이 참가한 가운데 1라운드 선두는 안나린이 차지했다. 버디 9개와 보기 1개로 8언더파 64타를 쳤다. 10번 홀에서 출발한 안나린은 12번(파4) 홀에서 첫 버디를 낚는 등 전반에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타를 줄인 뒤 후반에 버디만 4개를 보태 8언더파를 완성했다.

전인지와 박주영이 나란히 7언더파 공동 2위에 자리했고, 뒤를 이어 유해란과 김아람이 교포 대니엘 강(미국)과 함께 6언더파 공동 4위 그룹을 형성했다.

김세영, 임희정, 임진희가 5언더파 공동 7위 그룹에 이름을 올리는 등 상위 13명 중 한국 국적 선수는 8명에 달했다. 투어별로는 KLPGA 투어(안나린 박주영 유해란 임희정 임진희) 5명, LPGA 투어(전인지 김아람 김세영) 3명이었다. 안나린은 "미국에서 뛰고 싶어 이번 겨울 LPGA 투어 Q스쿨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이번 대회 우승을 통해 미국행 직행 티켓을 따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 여자골프는 1988년 고 구옥희가 스탠더드 레지스터에서 첫 승을 거둔 이래 2주 전 고진영의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우승까지 그동안 48명의 태극남자가 총 199승을 합작했다.

한편 LPGA 투어 '60대 타수 최다 연속 라운드' 신기록에 도전했던 고진영은 버디 3개를 잡았지만 보기 2개를 얹으며 1언더파 71타에 그쳐 60대 타수 연속 라운드 행진을 14에서 마감했다. 공동 42위에 머물러 세계랭킹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2라운드 이후 분발이 필요하게 됐다. 고진영은 "비도 와 춥고 힘들었다. 최선을 다했는데, 잘하고 싶은 욕심과 부담감 탓인지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박인비는 2언더파, 박민지는 1언더파를 기록했다.

부산 |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정규시즌 끝이 코앞인데...우승 향방 오리무중

KT·삼성 1경기차 1,2위 첫 '1위 결정전' 현실로?

KT 주춤...삼성 무서운 추격
오늘부터 2연전 선두 분수령
동물맨 사상 첫145번째 경기

요된다든 통념이 있었지만, 올 시즌은 예외다.

●145번째 경기 이뤄지나?

그 사이 삼성과 LG가 치고 올라왔다. 파죽지세의 흐름까진 아니었기에 뒤집기엔 실패했다. 하지만 가시권에 났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수확이다. 잔여경기 일정상 가장 유리한 쪽은 삼성이다. 삼성은 KT와 2경기를 치른 뒤 SSG 랜더스를 만난다. 이후 이틀을 쉰 뒤 다시 키움 히어로즈~NC 다이노스(2연전)와 3경기로 시즌을 마무리한다. 데이비드 뷰캐넌, 원태인, 백정현의 확고한 원투스리펀치를 몰아서 쓸 수 있다. 이 경우 최재홍, 마이코 몽고메리를 볼펜으로 돌려 약점을 지울 가능성도 있다. LG는 가장 많은 잔여경기를 독에서 득으로 바꿔야 한다. KT가 8경기, 삼성이 6경기, LG가 10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KBO리그 규정 제1장3조3항에 따르면 정규시즌 1위가 2개 구단일 경우 와일드카드 결정전 하루 앞서 별도의 1위 결정전을 치른다. 홈구장은 구단간 전적 다승, 다득점, 전년도 성적순으로 정해진다. 역대 최초의 '타이 브레이크'가 치러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한편 LG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 3개 구단이 동률을 이룰 경우, 3개 팀끼리의 상대 전적으로 순위를 나눈다.

타이브레이크도, 상대전적 계산도 현 시점에서는 이른 얘기다. 시즌 일정 95%를 소화했음에도 말이다. 주말 대구에 야구팬들의 관심이 온통 쏠릴 수밖에 없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KBO리그 시즌 일정의 5% 정도만 남겨둔 시점에서 여전히 선두 싸움은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다. 상위권 팀들이 갈수록 승수를 쌓는 풍경이 익숙한데, 오히려 집단 슬럼프 속에서 승률을 깎고 있는 형국이다. 2강이 2약으로 바뀌며 완성된 오리무중 선두 싸움. 20일까지 선두 KT 위즈와 2위 삼성 라이온즈는 1경기, 삼성과 3위 LG 트윈스는 1.5경기차로 팽팽하다. 22일부터 대구에서 열릴 KT와 삼성의 2연전이 중요한 이유다.

●7.5G→1.5G차, 한 달도 안 걸렸다

9월말까지만 해도 선두 KT의 질주가 심상치 않았다. 매직넘버 계산의 시기가 다가오는 듯했지만 제대로 된 연승 한번 없이 상승곡선이 꺾였다. 9월 22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부터 하락세가 시작됐다. 이후 21일까지 25경기 성적은 7승14패 4무(승률 0.333). 같은 기간 최하위다. 팀 평균자책점(ERA) 자체는 3.17(2위)로 여전히 견고하다. 하지만 타선이 0.233(9위)으로 슬럼프에 빠졌다. 약물의 25경기를 치르기 전까지 2위 삼성에 5.5경기, 3위 LG 트윈스에 7.5경기차로 앞서 있었지만 넉넉했던 게임차를 다 잃었다. 3경기차를 뒤집는 데 한 달 정도 소



KT 이강철 감독



삼성 허삼영 감독

넷플릭스 화제작 '마이네임' 주연 한소희가 말하는 '19금 & 베드신' ▶ 10면

쇼핑 LIVE



1879

NAVER '1879쇼핑' 검색

